

## 2023 년도 대학생방한단(제 1~2 단) (파견) 의 기록

### 1. 프로그램 개요

#### 【목적】

일본 전국에서 선발된 대학생들을 한국으로 파견하여 각종 시찰, 대학방문 등을 통한 동세대와의 교류, 특강 청강 등을 통해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일본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전파함으로써 향후 한일 간의 상호 이해 촉진과 신뢰 관계 증진을 위한 기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실시했다.

#### 【참가자】

사전 프로그램 (온라인) : 일본의 대학생 등 50 명

파견 (오프라인) : 일본의 대학생 등 50 명

#### 【방문지】

사전 프로그램 (온라인) : 경기도 성남시 50 명

파견 (오프라인) : 서울특별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파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부산광역시 50 명

#### 【일정】

■ 사전 프로그램 (온라인):

3 월 2 일 (토) 한국 방문 전 오리엔테이션, 특강 청강

■ 방한 프로그램:

3 월 10 일 (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오리엔테이션

3 월 11 일 (월) 【특강】 한일관계와 재외공관의 역할,  
【예방】 한국국립국제교육원, 【학교방문/교류】 동국대학교,  
【특강】 ‘경제 측면에서 본 한일관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3 월 12 일 (화) 【시찰】 현대 모터스스튜디오 고양, 【시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시찰】 세계유산 창덕궁, 【문화체험】 한복, 【시찰】 남산서울타워

3 월 13 일 (수) 【시찰】 파주 DMZ, 【학교방문/교류】 KAC 한국예술원

3 월 14 일 (목) 경상북도 경주시로 이동, 【시찰】 세계유산 불국사 석굴암, 동궁과 월지,  
부산광역시로 이동

3 월 15 일 (금) 【시찰】 송도해상케이블카, 【기업방문】 대선주조 주식회사, 성과보고회

3 월 16 일 (토) 김해국제공항에서 출국

## 2. 기록사진



2024년 3월 11일 【특강】 한일관계와 재외공관의 역할



2024년 3월 11일 【학교방문/교류】 동국대학교



2024년 3월 12일 【시찰】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



2024년 3월 12일 【시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24년 3월 13일 【시찰】 파주 DMZ



2024년 3월 14일 【시찰】 세계유산 불국사



2024년 3월 15일 【기업방문】대선주조 주식회사



2024년 3월 15일 성과보고회

### 3. 참가자 소감 (발췌)

#### ◆ 일본 대학생

동국대학교와 KAC 한국예술원에서의 학생들과의 교류는 동세대한국인과 만날 기회가 적은 나에게 아주 좋은 경험이었다. 또한 DMZ와 역사박물관 방문은 먼 이야기처럼 느끼고 있었던 전쟁이 한국사람들에게는 지금도 일상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전쟁과 평화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느꼈다.

#### ◆ 일본 대학생

‘상대방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 이번 프로그램에서 가장 마음에 남았던 말이다. 눈높이를 맞추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물을 생각하는 것은 일상에서 국가 간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우에 필요한 자세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 ◆ 일본 대학생

현지 대학생들과의 교류가 너무 좋았다. 일본을 좋아하지 않는 한국인들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나 일본을 동경하는 동세대의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아주 기쁘고 안심되었다.

#### ◆ 일본 대학생

동국대학교에서의 강의를 인상적이었다. 한국과 일본의 밀접한 경제관계에 대해 데이터나 설문조사를 통하여 한국 측의 관점을 알 수가 있어서 신선했다. 또한 질의응답에서 저출생 대책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 ◆ 일본 대학생

저출생·고령화와 비정규직 고용증가문제 등을 현지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이해를 심화할

수 있었다. 서로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과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특히 청소년 교류가 중요하며 한일이 연계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느꼈다.

#### 4. 한국 측 소감 (발체)


##### ◆ 한국 측 기관 담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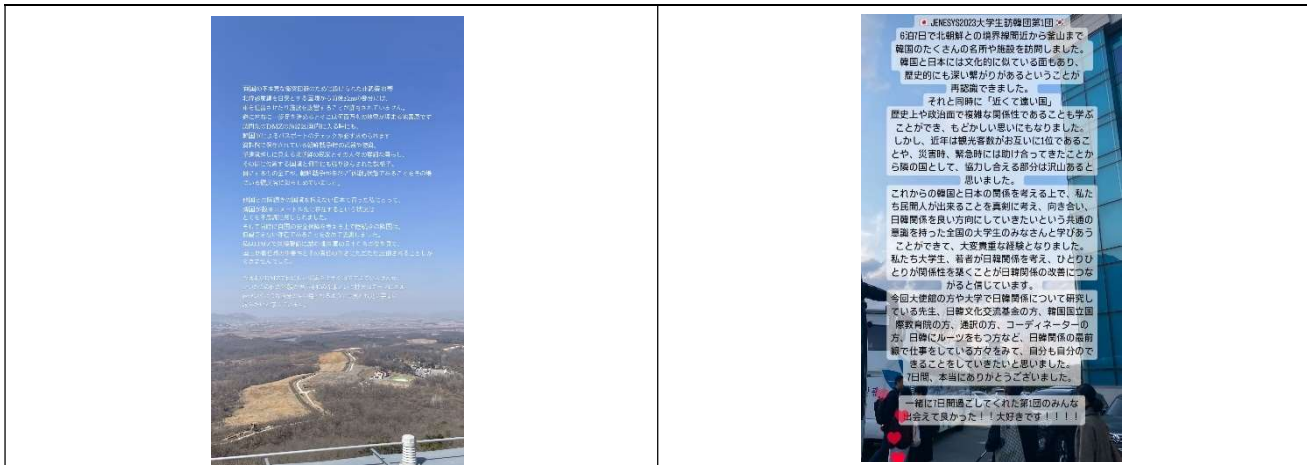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의 교육과 문화 및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연수를 통해 양국의 학생들이 상호 교류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업 담당자로서 보람있을 뿐 아니라 동 사업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었다. 이 연수가 양국 간 이해 증진을 통한 협력기반 구축과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 방문학교 관계자

이번 교류회가 한일 학생들에게 서로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번 만남이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한일 교류의 자그마한 한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일본과 한국은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어려운 관계일수록 더욱 얼굴을 맞대고 관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미래를 짚어질 젊은 이들의 민간교류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번 교류가 양국의 우호관계 축진의 초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5. 참가자의 대외 발신

 <p>東國大学の日本語を学んでいる大学生との交流</p> <p>今回は日本語の授業で学んでいる大学生と交流し、日本食や日本文化について話し合いました。とても楽しい時間を過ごすことができました。また、東國大学の先生から日本と韓国に関するお話も聞けました。とても勉強になりました。また、東國大学の先生から日本と韓国に関するお話も聞けました。とても勉強になりました。</p>	<p>東國大学に行きました。東大校舎より経済学から見た日本の発展について講義していただきました。日本と韓国関係である少々の論議について議論していく中で色々な面白い話も聞きました。その後は、大學生の方と交流しました。東國大学の学生は日本語がすごいと褒められました。そしてみなさん、本当に楽しくてくちくちお話を聞きました。日本食を紹介するコーナーもあり、日本食について話させてくれました。自分が大好きな食料のことを話して聞いてくれることが良かったです。おのずかになって聞いていくうちに、自分も日本食が好きでお土産としてお土産をお返ししました。</p> <p>後は韓国へ行ってみたい場所として聞かされていました。こちらは日本食を食べたいという声も聞かれました。とても楽しかったです。また、東國大学の先生から日本と韓国に関するお話も聞けました。とても勉強になりました。</p> <p>We went to Dongguk University. Professor Mesahiro Song gave us a lecture on Japan-Korea relations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I was most interested in his talk on how Japan and Korea should solve the same problems as Japan, namely the declining birthrate and aging population. Afterwards, we had a chance to interact with university students! I was surprised that the students of Dongguk University spoke very good Japanese and everyone was very kind and gave me a lot of information.</p> <p>There was a corner to introduce Japan, and I introduced Japanese food! It was fun to introduce my favorite food in a foreign country, and I was so happy that they listened so attentively to my presentation!</p> <p>At night, we went to Myeongdonggi! It was a bustling tourist spot. I could hear Japanese here and there, and there were more Japanese people there than I expected! Dinner was also delicious! I found a Thirty-One store and went in! It felt the size was bigger than Japanese ones.</p> <p>#日本文化 交流基金 #JENESYS #JENESYS2023 #大學生行先報告 #215492 #996</p>
<p>2024년 3월 11일 (Instagram)</p> <p>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일본어가 통해서 아주 놀랐습니다. 일본어 습득은 어려울 터인데 저의 한국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창하게 말하는 실력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나도 열심히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의 매력 소개로 영화와 드라마의 포스터 디자인의 한일 비교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적극적인 자세로 들어 주셔서 일본에 대한 높은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p>	<p>2024년 3월 11일 (Instagram)</p> <p>대학교에서 교류할 때 일본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일본 음식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다른 나라에서 소개할 수 있는 것이 즐거웠으며 열심히 들어주셔서 기쁩니다. 일본 음식과 관련하여 오차즈케를 선물로 드렸습니다.</p>



2024년 3월 14일 (Instagram)

자료관에 보존되어 있는 한국전쟁 당시의 무기과 물자, 망원경 너머로 보이는 북한의 민가와 사람들의 생활, 그사이에 위치한 국경과 겹겹이 둘러쳐진 철조망.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여전히 ‘휴전’ 상태임을 그 자리에 있는 관광객에게 알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국가와 육로로 이어진 국경이 없는 일본에서 자란 저에게 옆 나라가 불과 몇 킬로미터 앞에 존재한다는 상황이 매우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2024년 3월 16일 (Instagram)

한국과 일본은 문화적으로 비슷한 면도 있고 역사적으로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가깝고도 먼 나라’, 역사와 정치면에서 복잡한 관계성이 있다는 것도 배우게 되어 답답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미래의 한일관계를 생각하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고민하며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는 공통된 의식을 지닌 전국의 대학생 분들과 서로 배울 수 있어 아주 귀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학생, 젊은이들이 한일관계에 대해 생각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관계성을 구축하는 것이 한일관계의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6. 보고회에서 귀국 후 액션플랜 발표

(방문지 : 서울특별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파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부산광역시)

<p>【방한 중의 배움】</p>	<p>【방한 중의 배움】</p>

<p>일본에서 보는 역사와 한국에서 보는 역사는 다르다. 역사는 시대나 장소, 받아들이는 쪽에 따라 사고방식이 달라진다. 그렇다고 해서 서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들으려 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p> <p><b>【테마에 관한 방한 중 발표】</b></p> <p>한일 양국에서 저출생·고령화, 성별, 워라밸 등의 문제가 공통의 과제로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저출생의 해결책으로 육아에 관련되는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등의 정책이 있으나 해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양국 모두 아직도 육아는 여성이 하고 밖에서 일하는 것인 남성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남아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맞벌이 부부가 서로 협력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조금씩 육아휴직을 쓰기 쉬운 환경 조성이 진행되고 있다. 서로가 상대방의 좋은 점을 받아들이는 등 객관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공통문제의 해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p> <p><b>【액션플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한 중에 촬영한 동영상을 편집해 올린다.</li> <li>· Instagram 에 게시물을 계속 올린다.</li> <li>· 신문과 대학의 홍보지에 방한단에서의 경험을 기고한다.</li> </ul>	<p>한국에서 며칠 동안 생활해 보고 거리 풍경과 문화 등 한국과 일본은 매우 비슷한 나라라고 느꼈다. 또한 많은 한국 학생이 일본에 흥미를 가지고 있거나 한국에 있으면서도 모든 장소에서 일본어가 들려오는 것 등에서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일본과 한국은 거리가 가까운 나라임을 실감했다.</p> <p><b>【테마에 관한 방한 중 발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일교류에 대해서는 동국대학교와 예술원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문화교류의 중요성을 배웠다. 우리 세대가 계속 교류하고 함께 공통의 과제에 대해생각함으로써 한일관계의 보다 큰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고 느꼈다.</li> <li>· 한국의 현황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는 성과보고회에서 국립국제교육원 국제교류센터장이 흥근 씨께서 말씀하셨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발언이 매우 인상에 남았다. 또한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특히 역사와 경제면에서 한국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알게 되었다.</li> </ul> <p><b>【액션플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문에 방한 체험담을 기고하여 SNS 와는 또 다른 폭넓은 연령층의 많은 분들에게 알린다.</li> <li>· 대학의 국제교류관련 SNS 에 체험담을 올리고 프로그램의 선전도 겸하여 학생들이 내년도 방한단 참가에 흥미를 가지도록 한다.</li> <li>· 대학에서 수업을 듣는 등 한국어 공부를 계속해서 검정시험에도 도전한다. 국제교류에서 언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했기 때문에 한국어 스킬을 한층 더 높여 보다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싶다.</li> <li>· SNS 에서의 발신을 계속한다. 방한 중에는 올릴 수 없었던 사진이나 정보를 투고하고 방한단과 한국의 매력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린다.</li> </ul>
--	---

실시단체명 : 공익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기금